

훈춘 특색문화관광 대상 줄줄이 오픈



일전 '훈춘의 약속·훈춘에서의 봄'을 주제로 한 중앙, 성, 주 매체 취재단이 훈춘을 찾아 곧 오픈을 앞둔 와스톡환락섬, 방천풍경구 변경 나무잔도 등 특색문화관광구를 둘러 보았다. 이 관광구는 5.1절 연휴 기간 대외에 개방되어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광 체험으로 다가갔다.

◆ 와스톡환락섬에서 로씨야 정취 체험

와스톡환락섬은 훈춘 시내에 위치한, 오락, 음식, 공연, 쇼핑을 구전히 갖춘 로씨야풍의 종합 테마공원이다. 환락섬의 부지면적은 19헥타르이고 총 건축면적은 5만평방미터인데 롤러코스터, 바이킹 등 다섯가지 대형 놀이시설이 있고 소요탑, 범퍼카, 회전목마 등 9가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어있다. 이 밖에 어드벤처 영화관과 로씨야인형 5D 영화관 등 2곳의 몰입형 영화관이 있다.

그중 로씨야인형극장은 건축면적이 2,500평방미터로 1,400명의 관람이 가능한데 평양 서커스, 로씨야 황실발레단 예술가들이 대형 문화 테마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문화의 향연을 선사하게 된다.



풍경구는 위치에 따라 동쪽섬과 서쪽섬으로 나뉘며 5개의 테마기능구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각 로씨야풍경광장, 로씨야풍경타운, 해피아일랜드모험단, 해양어린이 놀이밸리와 환락수상세계 등이다.

환락수상세계는 건축면적이 3만평방미터로 김립성 최대의 실내 수상락원이다. 그 내부에는 대형 파도조성못, 사계절온천못, 아동놀이못, 아동표류못 등이 있다. 수상세계는 2,000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중국음식, 로씨야음식, 조선음식과 물놀이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다. 와스톡환락섬의 부총경리 장월의 소개에 따르면 이 환락섬은 4월 27일에 개장, 수상세계는 4월 30일에 개장했다.

◆ 방천풍경구 변경 나무잔도에서 3국을 한눈에

룡호각 '일망 3국' 전망대의 관광객 이동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풍경구는 룡호각 양쪽 두만강변에 중

국, 로씨야, 조선 3국 변경 나무잔도를 새로 건설하여 관광객들이 가까이에서 국경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문화관광 대상은 5.1절 연휴에 정식으로 대외에 개방되었다.



◆ 관광객의 쇼핑에 편리 도모, 훈춘동북아국제상품성 승격 개조

최근년간 훈춘동북아국제상품성은 훈춘의 독특한 지역 우세를 십각하여 국제전자상거래, 시장구매역 등 우대정책을 통해 전세계 우량 수입 상품을 유치하면서 김립성 관광쇼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일떠섰다.

훈춘동북아국제상품성 운영관리부 정은실 경리는 이 상품성을 새로운 핫플레이스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훈춘의 특색 풍경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상품성에는 또 로씨야 특색의 빵집, 키크렘 테마 전시관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핫플레이스 체험을 제공하게 된다. 동시에 상품성 각 점포에서는 할인, 세일, 쇼핑방송 등 행사를 열어 관광객들이 실속 있는 상품을 안심하고 찾고 살 수 있도록 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훈춘동북아국제상품성은 훈춘의 e 쇼핑 및 각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리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판매모식을 채택했는데 오프라인 년 판매액은 이미 1억원을 돌파했다. 온라인(약 20여개 생방송 점포)의 년 판매액은 3억~5억원에 이르렀다.

◆ 새 구도, 새 대상, 새 놀이법으로 훈춘을 100억급 관광현시로 건설

훈춘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및관광국 부국장 유미는 "최근년간 훈춘은 억급 관광현시 건설을 목표로 한편으로는 대상건설에 주력하여 와스톡환락섬, 동북아전자상거래산업단지, 실크로드발해고진, 동북호랑이표범교육기지 등 문화관광 대상을 건설하고 해산물거리, 유림식거리 등 특색거리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다양하고 개성화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화룡시 진달래문화관광축제

5.1절 기간 문정성시 이루어

5월의 첫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화룡의 '붉은 해 변강 비추네' 문화관광 브랜드를 부각시키며 흥업부민으로 변강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화룡시 제 14회 진달래문화관광축제가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개막되었다.

2006년 제 1회 진달래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한 이래 18년 동안 화룡시는 전 시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다하여 꾸준히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축제는 '주회장 + 분회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주회장은 서성진 진달래촌에 설치되었으며 3개 분회장은 각각 동성진 광동마을, 팔가자진 남구촌, 북동진 마을 '대판석'에 설치되어 동시에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문예공연 <진달래의 봄>으로 서막을 연 진달래문화관광축제는 미식 체험, 진달래 농특산물 공급 대축제, '무형화 진달래' 전시회, '화신레이드(花神巡游)' 등 이색적인 행사가 줄을 이었다.

진달래문화관광축제 개막 당일에는 근 1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가무, 음식, 미술, 민속체험 등 봄맞이 향연을 즐겼다. 행사장에서는 조선족 음식 체험, 조선족 전통민속체육공연, 전통민속정경쇼 등 특색 있는 행

사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화룡시고향원장공장 류선옥 사장은 "올해 축제에 관광객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다섯 시간 준비한 물량이 세시간 만에 절반이 팔려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박영희씨는 "고향의 명절은 매우 성대하고 그 변화는 더욱 크다. 특히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경치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매년마다 한번씩 고향에 돌아올 계획을 갖게 되었다."라고 감격해했다.

멀리 산서성에서 온 조녀사는 "남편과 함께 캠핑카를 운전하여 보름에 걸쳐 이곳 화룡까지 오게 되었는데 긴 여행길의 피로가 모두 가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 연변을 오게 되었는데 마침 진달래문화관광축제까지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특별한 추억"이라고 엄지를 내들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관광축제는 행사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형식이 더욱 새로워졌다. 주최측은 청춘캠핑, 청춘관광촬영, 청춘활력커피문화행사, 연변 중소학생문예공연, 군중공연 등 20가지 테마 활동을 마련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5.1절 기간 다각도로 화룡의 독특한 민속문화와 관광자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김영화기자



2024 제 1회 연변농업문화관광상품시장 개장

5월 1일, '고품질인삼·활력연변'을 주제로 한 2024년 제 1회 연변농업문화관광상품시장이 연변풍성인삼거래시장에서 열렸다.

연변풍성인삼거래시장에서 주관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관광국과 주농업농촌국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연변의 문화관광 열기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색농업을 발전시키며 농촌문화관광 통합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연변의 특색산업 브랜드를 홍보하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특색제품 전시 및 판매, 인삼천인연, 문예공연, 온오프라인 퀴즈

등이 포함되었다. 전시에는 총 56개 기업이 참가하여 인삼, 목이버섯, 꿀, 쌀 등 특색 지방 제품과 김치, 고추장 등 민속식품을 선보였다.

또한 시장 동쪽에서는 장백산인삼과 연변소고기를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여 전문 요리사가 현장에서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인삼소고기수프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무료로 진정한 연변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연변무용단, 연길시 문화관, 화룡시문화관, 진달래송예술단 등의 전문배우들이 공연을 펼쳤다. 주최측은 또한 왕홍을 초청하여 현장에서 틱톡 등 플랫폼으로 전국 시청자들에게 퀴즈를 내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으로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했다.

/ 연변일보

장백산풍경구 5월 6일부터 검표 시간 조정!



5월 6일부터 장백산 북쪽풍경구 검표 시간은 7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로 조정되었다. 일일 수용 인원은 2만명이다. 장백산 서쪽풍경구내 도로 및 시설 보수 작업으로 인해 서쪽

풍경구의 검표 시간은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일일 수용 인원은 1,500명으로 조정되었다. 장백산풍경구는 엄격히 시간대별로 나누어 예약 입장을 실행한다.

/ 인민넷